

일본 도서관 어린이 봉사활동의 현주소 (上)

- 연수 · 견학기 -

송 영 숙 (이화여대 평생교육원 독서교육지도자과정 주임강사)

- 차례 : (上)
1. 들어가며
2. 견학여행 일기초

1. 들어가며

필자는 토오쿄오어린이도서관(東京子ども図書館:東京都中野區 소재)의 이시이 모모코(石井桃子) 연수 조성금을 받아 개인 연수 계획으로 2주간의 일본 견학 여행을 하게 되었다. 당초의 계획으로는 1997년 11월 신축 개관한 토오쿄오어린이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여름이야기회 워크샵(夏のお話の講習會)에 참석하고 몇 군데의 가정문고를 견학하는 일주일 정도의 여행계획이었다. 그런데 연수금을 받아서 가는 기회에 더욱 많은 것을 보고 와야겠다는 욕심이 앞서고, 토오쿄오어린이도서관의 많은 프로그램에 집중

적으로 참여해 보고 싶어 7월말의 여행 일정을 6월말로 앞당기고 일주간의 계획도 2주일로 늘렸다. 2주간을 정말로 열심히 뛰면서 욕심껏 배웠다. 열심을 내어 뜨거운 마음으로 뛰어다니, 게다가 날씨까지 왜 그리 뜨거웠는지 몸과 마음이 땀을 아주 많이 흘린 정말 '뜨거운' 견학 여행이었다.

토오쿄오어린이도서관은 설립당시부터 이상적인 어린이 도서관을 목표로 했다고 생각된다. 또한 신축개관 이후 봉사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화되어 토오쿄오어린이도서관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것만으로도 큰 공부가 되리라 생각되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의 목적은 토오쿄오

어린이도서관의 집중적인 견학과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독서교육 시설(?)으로써의 가정문고의 견학이었다. 그러나 이번 여행에서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수확했는데 큰 수확 중의 하나가 네리마구(練馬區)의 보진소나 치바시(千葉市)의 공원에 개설한 문고의 활동이었다. 원래 계획했던 여행의 목표보다 더 많은 수확을 하는 데는 무스비메노카이(むすびめの會)⁶⁾의 대표인 사코다(迫田けい子) 씨의 도움이 컸다. 이 모임의 회원을 연결해 견학할 곳의 안내 등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견학 기행중 보고 들은 것과 배운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다. 이 글은 좀더 효과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앞부분은 일정에 따른 여행일기초, 뒷부분은 도서관 및 문고 활동에 대한 소개로 구성하였다. 도서관 및 문고 활동의 소개에서는 이번 여행에서보다 앞서 얻어진 정보도 포함되었음을 밝힌다.

2. 견학여행 일기초

6월 25일 목요일

김포공항 09:00 발. (아시아나 OZ1023 편)

이번 견학기행은 시작부터가 바빴다. 6월 25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행사에 참가해 보고 싶어 6월 24일 늦게 까지 일하고 그 다음날 9시에 비행기를 탔다. 9시 15분전쯤 공항에 도착하여 겨우 비행기를 탄, 처음부터 조마조마하고 급한 마음으로 시작한 여행이었다. 비행기에 올라 내 자리를 찾아 앉고 안도의 숨을 돌린후, 2시까지 토오쿄오어린이도서관에 어떻게 시간을 맞추

어 도착할까를 생각하였다. 내가 아는 도오쿄오의 교통망을 잘 활용한다면 시간적으로는 가능하였다.

나리타(成田)공항에 내려 우선 짐을 택배로 보내고 나니 12시경. 잠시 생각을 잘못하여 신주쿠(新宿)행 빠른 열차를 놓치는 바람에 나리타공항에서의 시간 낭비가 거의 한시간이 되었다. 우에노(上野)까지 케세이센(京成線)스카이라이너를 타고 토오쿄오어린이도서관에 도착한 시간은 2시 30분경. 이야기양상블의 휴식시간이었다. 후반부의 이야기를 즐길 수 있었고 마츠오카 료코 선생님(나는 고양이이다)라는 즐거운 말놀이 이야기를 들었다. 이번 연수 계획에 대해 약간의 상담을 끝낸후 돌아오는 길에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아카사카(赤坂)에서 만나기로 약속, 저녁을 함께 했다.

6월 26일 금요일

히비야(日比谷)도서관 어린이실 견학.

오전 11시 도오쿄오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 후배 조은희와 연락이 되어 히비야도서관에서 만났다. 히비야 공원 안에 있는 낡은 시멘트건물, 수차례 방문한 적은 있으나 히비야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코다씨를 만나는게 방문 목적이었다. 대학후배에게 히비야도서관을 보여주는 것과 사코다씨를 소개하는 것은 나의 즐거움 중의 하나였다. 점심을 함께 하며 사코다씨와 이번 견학여행 계획에 대해 의논을 하고 사코다씨로부터 문고 견학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필자가 회원이기도 한 무스비메노카이의 대표인 사코다씨는 회원망을 통해 많은 곳을, 특히 특색있는 문고를 소개해 주었다. 다음날 시즈오카(静岡) 소재 쿠사가야(草谷)씨의 토모에(トモエ)문고

6) 무스비메노카이(むすびめの會) : 도서관과 재일 외국인을 묶어주는 모임(圖書館と在日外國人をむすぶ會)으로써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 도서관이 어떻게 다문화 서비스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서들의 모임. 1990년 7월 발족됨.

방문을 위한 시간 약속 등을 하고 헤어졌다. 이후에는 토오쿄오어린이도서관에 들러 연수담당 아라이(荒川愷子)씨와 연수계획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하였다. 당초의 계획이었던 이야기 워크샵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약간의 문제가 된 듯하다.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연수금을 받게 있었는데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연수금의 유용을 의심해서였을까.

그러나 더 많은 것을 더 빨리 보고 배우고 싶은 의지가 이해되어진 듯하다. 물론 이야기 워크샵에는 내년에 꼭 참가하려고 한다. 또 한가지 크게 공부된 것은 저작권 문제였다. 토오쿄오어린이도서관에서 출판한 [お話のろうそく]와 비슷한 형태로 만든 [이야기초롱]이 그것이다. 이야기의 보급을 목적으로 서울독서교육연구회에서 [책고리]출판 등록을 하고 회원들의 이야기 교육을 위해 만든 [이야기초롱] 첫째권과 둘째권을 자랑삼아 토오쿄오어린이도서관에 선물을 했었다. [お話のろうそく]에서 번역한 이야기와 몇 커트 빌려쓴 삽화가 문제가 되었다. 물론 이야기의 출처도 확실히 밝혔고 삽화를 빌려 사용했음도 분명히 밝혔으나 저작권 문제를 다루는데는 상당히 엄격하였다. 마츠오카 선생님의 많은 이해와 도움으로 이 문제는 잘 해결이 되었고, 내게는 큰 공부가 되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의 [슬라이드와 이야기 ②]는 내게 어린이독서자료를 이해하는 새로운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슬라이드로 보는 아동문학여행 두 번째 시간으로 스위스 태생 알로이스 카리지에(Alois Carigiet 1902~1985)의 작품 배경이 된, 그의 고향 트룬지방의 슬라이드를 보면서 나는 '이야기 여행'이었다. 카리지에의 작품 속에 그려진 그림과 실제, 작품속의 주인공이 되었던 인물과의 만남 등, 슬라이드와 이야기를

통해 내가 실제로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스위스의 바로 그곳을 여행한 듯한 기분이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또 한가지 늘게 되었다.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아동 문학의 근본이 된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그 작품을 이해하고 정리하여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다.

6월 27일 토요일

토오쿄오어린이도서관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와 제2·4주 토요일 오전에 이야기 시간이 있다. 유아(초등학교 1학년까지), 어린이반으로 나누어 매월 각6회씩 열린다. 넷째 토요일 유아를 위한 이야기 시간, 마츠오카 선생님이 이야기 당번이었다.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이야기실에 따라 들어가도록 허락 받았다. 작고 아담한 이야기 실에서는 예닐곱명의 꼬마 손님들과 그림책, 인형 등을 가지고 함께 자유로운 이야기 시간을 가졌다. 끝이어서 어린이들이 줄지어 이야기실로 들어간 후 문은 닫혔다. 이야기실 속에서 또 다른 재미있는 세계가 펼쳐 지고 있음을 상상해 볼 수 있었다. 토요일 저녁 토오쿄오어린이도서관에서는 <제 2회 어린이와 함께하는 음악회 - 너구리의 사미센(三味線)연주>가 있을 예정이었다. 시즈오카의 쿠사가야씨를 방문하기 위한 약속으로 이 음악회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다.

점심식사 후 시즈오카에 가기 위하여 4시 30분 동경역에서의 사코다씨와의 약속시간까지는 약간의 여유가 있었다. 마츠오카선생님의 권유로 나카노(中野)역 근처의 브로드웨이 쇼핑몰 안에 있는 서점(이상적인 서점은 아니지만)을 한 시간 가량 둘러보고 도오쿄오역으로 향했다. 토오쿄오역에서 사코다씨를 만나 5시가 조금 지나 시즈오카행 기차를 탔다. 쿠사가야씨 집에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이라고 사코다씨가 말했다. 누

가 모인단 말일까. 단지 문고를 보러 가는 것 뿐인데, 6시 30분경 시즈오카에 도착하니 쿠사가야씨와 딸 유우코양이 마중나와 있었다. 유우코양은 2년전 학생때 친구와 함께 한국에 여행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졸업해서 선생님이 되어 있었다. 쿠사가야씨의 집은 마당이 넓고 입구에 조그맣게 토모에(トモエ) 문고라고 표시된 나무판이 있을뿐, 이 문고를 위해 멀리 시즈오카까지 올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나 응접실에 들어가니 커다란 상이 놓여졌고 차츰차츰 사람들이 모였다. 그냥 지나가는 모임이 아니고 정말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 도서관 또는 문고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였다. 시즈오카시립중앙도서관장이었던 오오사와(大澤喜雄 : 중학생때까지 서울 거주)씨, 역시 전직 도서관장이었으며 현재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인권보호운동을 하는 공무원 호리에(堀江)씨, 문고를 경영하는 아사히나(朝比奈和美)씨, 시즈오카현 맹인회에서 봉사하는 교포 조순자(曹順子)씨 등 10여명이 모인 즐거운 자리였다. 유우코양과 그 친구 카토오(加藤薫子)양이 요리를 담당했다. 쿠사가야씨 마당에서 자라고 있는 약초 잎으로 끓인 허브차는 일품이었다. 또 한가지 시골의 정취를 불러 일으켰던 것은 한창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개구리의 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어렸을 때 시골 논에서나 들던 개구리 소리를 여기에서 듣다니. 이 집 뒷뜰 바로 옆에는 논이 있었다.

6월 28일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 뒷뜰로 향하는 문을 여니 작고 예쁜 꽃들이 잔뜩 피어 있었다.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화려한 꽃은 아니었지만 귀엽고 잔잔한 즐거움을 주는 꽃이었다. 뒤뜰은 상당히 넓은 잔디밭과 꽃과 나무들이 많았다. 그 꽃나무들은 거의

모두가 약초였다. 가지수도 여러 가지, 따라서 꽃모양과 색깔이 다양했다. 하나같이 수수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정말 예쁜꽃들이었다. 이 잔잔하고 예쁜 꽃들을 사진에 담고 사코다씨, 쿠사가야씨와 함께 포즈도 취했다. 아침 햇살이 벌써부터 무덥게 내리쬐는 뜨거운 날씨였다.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하고 토모에(トモエ)문고의 봉사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근처에 살고 있는 무스비메노카이의 회원인 교포 조순자씨도 함께 했다. 토모에문고의 역사, 그 지역에 관한 이야기, 찾아오는 아이들, 이야기회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고 특히 이야기회의 시연도 했다. 쿠사가야씨는 인형을 이용하거나 자석판, 앞치마를 이용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싫증이 날까. 그러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어서 끝을 내었다. 뒷마당의 약초를 이용한 약초우동과 허브차로 점심을 끝내고 시즈오카관광에 나섰다. 무엇이 보고 싶으냐는 질문에 나는 가장 시즈오카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되 물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이 니혼다이히라(日本平)의 쿠노오잔 토오조오큐우(久能山東照宮)와 박물관, 미술관의 관람이었다. 남편 쿠사가야(草谷)씨가 우리를 태우고 조순자씨도 합세하여 5명이 니혼다이히라(日本平)로 갔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정 공원으로 로프웨이를 타고 쿠노오잔(久能山)으로 가면 토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무덤인 토오조오큐우(東照宮)와 박물관이 있다. 로프웨이를 타고 내려다 보이는 해변에는 비닐하우스가 즐비하게 늘어섰는데 이 곳은 바로 딸기재배를 하는 곳이란다. 일년내내 일본 전체의 반이상의 딸기를 제공하는 재배지로 지금부터 키우는 것은 크리스마스 케익을 만들기 위해 일본 전역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즈오카는 차외



(사진1) 니혼다이히라 미술관 전경

에도 딸기 재배로 유명하다고 한다.

일본에 무덤이나 신사를 돌아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일본의 자연승배사상은 사람이 죽으면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신으로서 숭배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죽은 조상을 섬길때도 한사람의 가족으로 의식하고 인간적인 접근은 하는데 비해 일본사람들은 죽은 조상은 일종의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당이 아니라 신사라는 이름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된다. 쿠노 오잔 토오조오큐우(久能山東照宮)는 토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무덤으로 신사(神社)이다. 토쿠가와 이에야스의 유언으로 이곳에 무덤을 만들었다. 조용한 언덕(靜岡),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박물관에도 토쿠가와 이에야스와 그의 가계의 소장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4시가 지나서 니혼다이히라(日本平)미술관에 들렀다. 니혼다이히라호텔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으로 크지는 않았지만 특징이 있었다. 전시장, 기념품 판매, 특히 약초원이 있어서 허브차와 케익 판매도 하고 있다. 마침 {무라카미 야스나리(村上康成)의 그림과 그림책} 전시회가 있어서 더욱 좋았다. 그림책의 원화를 감상하면서 무라카미씨는 물고기, 새, 나무 등을 주제로 대자연에 대한 외경(畏敬), 동경(憧憬)등의 마음을 그림

과 그림책을 통해 전하고 있구나 라고 느꼈다. 그림책 몇 권과 엽서 몇 세트를 사고 허브차와 케익 한쪽도 맛보고, 6시 30분 경 어둑어둑해질 무렵 미술관을 뒤로 했다.

6월 29일 월요일

일본도서관협회를 방문했다. 「아동도서관원양성강좌」가 시작되는 날. 며칠전 어린이 자료센터 시마부쿠로(嶋袋)씨에게 전화하자 마침 강좌 시작 날이니 더 좋지 않느냐며 반겨 주었다. 5년 전(1993) 어렵고 힘들었지만 열심히 과제물을 해내면서 그 강좌에 참여했던 추억과 그리움이 솟아나기도 했다. 90세가 넘은 고고우치 토시코(小河内芳子)선생님의 현역으로써의 활동에 존경을 보낸다. 오후에는 세라(セラ)출판사를 방문하였다. 2년전 이화여대 평생교육원 수강생을 안내하여 일본독서교육현장의 견학여행을 갔을 때 히비야도서관에 선물했던 그림책 [만희네 집(권윤덕, 길벗어린이, 1996.))이 좋은 평판을 얻어서 세라출판사에서 번역판을 내었다. 나는 그 책을 소개하고 추천했고, 사코다씨는 그 책을 번역한 관계로 세라출판사의 편집장 고가와(小川)씨는 우리를 초대한 듯하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재미있는 사담을 즐겼다. 오랜만에 가진 마음 편한 자리였다.

6월 30일 화요일

오전 히라주쿠(原宿)역에서 우시쿠보(牛久保ゆづり)씨를 만났다. 토오쿄오어린이도서관의 이야기강습에서 친구가 된 사람이다. 미타카시에 살고 있는데 그 친구 덕분에 쿠리야마(栗山)씨가 운영하는 오오사와(大澤)문고, 미타카역전 도서관을 견학한 적이 있다. 히라주쿠역에서 요요기(代代木)공원을 뒤로하고 오모테산도(表參

道)를 쭉 걸어내려와 중간 쭈에서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서니 크레용하우스(クレヨンハウス)라는 어린이도서전문점이 있다. 상당히 넓은 매장에 책이 가득이었다. 1층은 책, 2층은 장난감을 비롯 문구, 어린이 생활용품, 지하는 간단한 식사와 차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었다. 그림책을 주로 하여 도서관에서 보는 것 이상으로 많은 책도 뒤적여 보고 그림책도 많이 샀다. 지하 식당에서 점심까지도 맛있게 먹었다. 6~7년전 시브야(涉谷)에 있는 어린이도서전문점 도오와야(童話屋)를 방문했을 때와는 또다른 느낌이다. 도오와야를 비롯, 분쿄오구(文京區)의 삐삐(ピッピ)나 미타카시의 리토루(リトル) 등 어린이도서전문점은 작고 귀여운(?) 공간 활용을 하는데 비해 크레용하우스는 나름대로 잘 구성된 특징있는 대형서점이다.

저녁 6시 유락 조(有樂町) 아사히 홀(朝日ホール). IBBY(International Board on Books for Young People) 아사히국제아동도서보급상(朝日國際兒童圖書普及賞) 기념 심포지엄 '책이 갖고 싶다. 날개를 달고 싶다.'에 참가했다. 토오쿄오어린이도서관 이사장 마츠오카선생님의 권유와 초대로 참가할 기회를 가졌다. 시작 시간은 6시 30분인데 6시도 되기 전부터 입장객이 장사진을 이룬다. 아사히상은 세계의 어린이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주기 위하여 독서 진흥을 위한 훌륭한 활동을 한 단체나 기관에게, 제 20회 IBBY 토오쿄오 대회(1986)를 기념하여 아사히(朝日)신문사가 매년 주는 상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10년 동안 수상했던 단체의 대표 중 4명이 패널리스트가 되어 발표를 하였다. 중남미 지역의 [책의 은행], 타이랜드의 [순회문고], 인도의 [아동문학·화가협회], 일본의 [점자번역 그림책문고]의 활동은 큰 감동을 주었다. 특히

이 심포지엄에는 일본의 퍼스트 레이디, 황후가 참석하여 더욱 빛을 내주었다. 일본의 황후는 아동문학과 아동도서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많은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동시를 영역하여 국제 안텔센상을 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집에 돌아오는 길엔 가슴에 무언가 가득히 차오르는 듯한 뿌듯함을 느끼고 우리나라의 독서 및 도서관 운동, 어린이 독서진흥을 위해 더욱 힘을 내어 할 수 있는 한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수도 없이 하였다.

7월 1일 수요일

좀 피곤하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보다. 온김에 많은 것을 보고 가려고 2주간의 일정을 잡았는데 너무 길다 싶은 마음도 든다. 보건소문고에 공연히 간다고 했다. 그러나 가보자. 9시 30분 이케부쿠로(池袋)역에서 에모리(江森)씨를 만났다. 이케부쿠로역 건물이 복잡하고 넓어서 에모리씨가 보내준 약도를 보고 그대로 찾았다. 만나고 보니 작년 여름 딸과 함께 서울에 여행 왔던 사람이었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구면이었다.

보건소의 문고에 어떤 볼것이 있을까하고 회의적이었는데 히카리가오카(光が丘)보건소에 도착해보니 눈이 번쩍 뜨였다.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와타나베(渡邊順子)씨의 열정과 안내는 내게 많은 것을 배우게 했다. 스즈란(すずらん) 문고를 운영하며 형짚 그림책 만들기, 저술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였다. 네리마(練馬)구에는 여섯 개의 보건소가 있는데 모두 문고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문고의 이름은 캅가루문고, 와타나베씨의 열정적인 활동이 그 원동력이 된 듯하다. 이번에 견학한 히카리가오카 보건소의 문고는 새롭게 개발된 아파트촌에 있는 보건소

문고였다. 에모리씨는 도서관 근무를 위해 일찍 돌아가고 와타나베씨는 점심까지 대접하면서 가까이 있는 히카리가오카 도서관까지 안내해주었다.

저녁에는 도오쿄어린이도서관에서 전날 IBBY와의 심포지엄의 패널리스트들을 초대하는 JBBY주최의 파티가 있었다. 동경어린이도서관에서 장소와 음식을 제공하였는데 무공해 식품으로 직접 요리한 가정요리 파티였다. JBBY 회원들의 당당함, 패널리스트들의 즐거움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다. 우리 KBBY의 행방이 어찌될 것인지... JBBY의 든든한 활동을 보며 KBBY의 운영위원이었던 나는 시작되자마자 흔들려버린 KBBY와 그래서 그것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죄의식마저 느끼며 주눅이 들 정도였다. 나서서 자신있게 KBBY에 대해 말할 겨리가 없는 내가 초라하게 느껴졌다.

7월 2일 목요일

치바시(千葉市) 사츠기야오카(さつぎが丘)에 있는 문고를 견학했다. 아키하바라(秋葉原)역 플랫폼에서 후배 조은희와 만나 치바행 전차를 탔다. 신케미가와(新檢見川) JR개찰구 3시, 제작년 3월 무스비메노카이 서울 여행에 참가했던

킨토오(近藤)씨와 만났다. 킨토오씨는 [치바시의 도서관을 생각하는 모임]의 대표이다. 몇 정거장 버스를 타고가서 사츠기야오카에 내리니 조용한 곳이다. 신흥주택단지처럼 보인다. 그런데 재미있는 풍경은 공원 입구에 폐차된 버스 2대가 나란히 있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견학하려는 어린이 문고-카이즈카(かいづか)문고였다. 벌써 20년의 역사를 가진 버스문고이다. 그 지역에 도서관이 없을 때부터 어머니들이 중심이 되어 열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한 대의 버스이던 것이 지금은 두 대가 되어 한쪽은 어린이실, 한쪽은 사무실과 이야기실로 사용된다고 한다. 20년동안 3번 차를 바꾸었다고 한다. 몇 해마다 페인트칠을 다시 해주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버스 내부에는 손잡이, 기둥, 운전석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아이들의 놀이 공간으로도 재미있게 사용된다. 이 문고는 치바시의 문고연합회의 총회에서 회장을 정하고 그 회장이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한다. 공공장소인 공원에 이런 시설물 반입이 허락되는가 하고 물어보았다. 20여년전 도서관이 절실히 필요할 당시 자연스럽게 이곳에 생겼고, 지금은 아주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버스문고가 있어왔고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을 뿐 아니라, 아직도 아이들이 이 문고를 충분히 즐기



(사진2) 카이즈카 문고(구리와구리의 버스문고)



(사진3) 버스문고의 내부

고 있기 때문에 존재가치가 있다는 대답이다. 칠을 다시 하고 적당한 시기에 버스를 바꾸어야 하는 문제는 있지만 언제까지일지는 모르나 이 봉사는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진정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아이를 잘못 교육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문고였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일본은 음력이 아닌 양력으로 칠석날을 지내고 있다는 것이다. 휴일은 아니지만 하나의 절기로써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날인 듯하다. 이 문고에서도 칠석이 가까워지면서 대나무 장식을 시작하고 있었다.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것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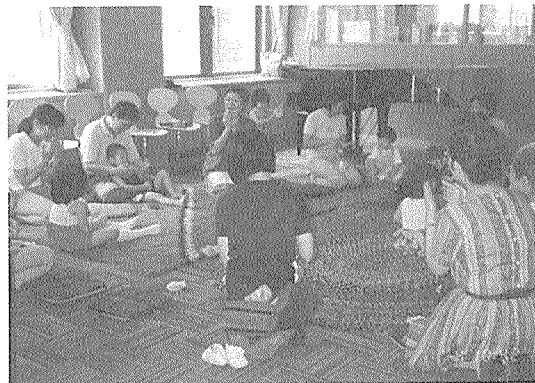
7월 3일 금요일

피곤하고 집생각이 난다. 우리집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아침 일찍 도오쿄오어린이도서관에 가서 제 14기 이야기강습회(おはなしの講習會)의 수업을 청강하였다. 6년전 교육받을 때가 생각한다. 같은 이야기도 이야기하는 사람에 따라 정말 색깔이 다를까 또다시 느꼈다. 이야기는 역시 많이 듣는 것이 배우는 지름길이다.

저녁 7시 [슬라이드와 이야기] 세 번째 시간에 참가해서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를 만났다. 하이디의 고향마을, 하이디가 잘 다녔던 길과 살던 집, 하이디의 작가 요한나슈피리가 즐겨 걷던 길을 여행하고 걸으면서 찍은 사진과 그곳에 얽힌 얘기는 [하이디의 길]을 정말 가보고 싶게 했다.

7월 4일 토요일

이번 견학여행에서 도오쿄오어린이도서관의 만남은 오늘로써 마지막이다. [와라베우타로 놀자.(わらべうたであそぼう)]견학. 와라베우타는 전래동요라고 하면 될까. 아기와 부모가 함께



〈사진4〉 토오쿄오 어린이도서관의 아기를 위한 프로그램
—わらべうたであそぼう

참가하여 전래동요와 동작등, 스킨쉽 놀이 시간이었다. 토오쿄오어린이도서관의 견학을 마무리 짓고, 이쪽저쪽 인사하고, 기념사진 몇 장 찍고 도서관을 뒤로 하였다. 웬지 서운한 것 같다. 힘들고 더운 여행이었는데 이제 그만 끝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섭섭하여 돌아가는 발길이 가볍지 않았다.

오후 2시 무스비메노카이 회원들과 함께 토시마(豊島)구립중앙도서관 견학. 토시마구립중앙도서관은 이케부쿠로(池袋)역에서 가깝다. 이 도서관에서는 다문화 서비스가 제법 활발한 듯. 토시마 중앙도서관을 자주 찾는 유학생 등의 외국인 이용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중국인과 한국인이 토시마구에는 많이 살고 있어 도서관 이용자도 많다고 한다. 도서관과 이용자가 서로 도와가며 도서관 봉사가 이루어지는 듯하다. 서고의 외국어 자료코너에는 영어, 중국어 자료 다음으로 한국어 자료가 많았다. 이케부쿠로(池袋)주변의 중국어 서적을 취급하는 상점도 탐방하였다. 무스비메노카이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도서관이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모임이다. 지금 당장 도서관을 찾아오는 사람에게도 제대로 봉사하

지 못하고, 도서관이 너무 적어 도서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우리들의 실정을 생각하면 약도 오르고 마음도 급하다.

7월 5일 일요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신칸센(新幹線)으로 코오베(神戸)에 도착하니 9시 30분경. 코오베시립중앙도서관의 청구문고 견학은 2시 약속이다. 어디부터 가야할까. 관광안내에 가서 오전 중에 코오베를 관광할 만한 곳을 물었더니 걸어서 돌아볼 수 있는 이진칸(異人館)을 권하면서 지도를 주었다. 일단 역 밖으로 나와보니 시티투어버스가 있었다. 옳지 이것이구나. 1일 티켓을 사면 원하는 곳에서 타고 내릴수 있는 순환 버스였다. 그 버스를 타고 앉아 안내양의 설명을 죽 들었다. 우선 꽃시계가 있는 꽃거리에서 내려 시청 전망대에 올라가서 코오베 시내를 둘러보았다. 바다를 매꾸어 만든 시가지가 멀리 보인다. 코오베는 예전에 서양사람이 일본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었고 바닷가 도시이면서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 경관이 좋은 코오베에 별장을 짓고 살았다고 한다. 그 외국인 동네가 바로 이진칸마을이다. 이진칸은 코오베에만 유일하게 있는 독특한 관광자원이다.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돌면 주우카가이(中華街), 코오베항구와 등대, 시내 한 복판에 있는 물벽(Water Wall)등을 볼수 있다.

코오베시립중앙도서관의 청구문고(靑丘文庫)를 견학하기 위해 찾아갔다. 96년 1월 칸사이(關西)지진 직후 무스비메노카이의 모임이 코오베에서 있을 때 청구문고를 견학한 적이 있다. 77세의 한석희(韓皙曦)옹이 젊을 때부터 모은 자료-한일외교사, 한일기독교외교사, 화집, 창

간호부터 모은 신문 등 귀중한 자료가 많다. 지진 때문에 마구 뒤섞였는데 대강 정리해 놓은 상태라고 했었다. 높고 보니 자신의 아들도 그 일에 별로 뜻이 없는 듯하여 코오베시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할 예정이라고 했었다. 코오베시립중앙도서관에 기증된 청구문고를 견학하는 것이 코오베 방문의 목적이었다. 이 청구문고는 귀중본과 희귀본이 많이 소장되어 있어 일반에게는 공개되지는 않고 있다. 열람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으면 열쇠를 받아, 들어가게 되어 있고 청구문고의 문은 자동으로 잠기게 되어있다. 한석희옹은 자료를 자기 나름대로 분류해서 배열했었는데 코오베시립중앙도서관에서도 청구문고의 자료만은 한석희옹의 분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코오베시립중앙도서관의 어린이 열람 봉사도 엿볼 수 있었다. 어린이실 앞에는 칠석날 장식이 있었다. 커다란 대나무에 주렁주렁 색종이 고리가 걸려 있고 아이들이 만든 색종이 작품이 장식되어 있다. 칠석날에 관한 자료도 특별 전시하고 있었다.

늦은 오후에 전차를 타고 바다를 끼고 한참을 가서 방문한 곳은 아파트에 있는 가정문고였다. 침대와 책상이 있는 아주 작은 아이방 한쪽벽면에 이중 서가를 설치해 책을 꽂아 놓았다.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좁은 공간이라도 개방해서 이웃아이들에게 책을 읽히고자 하는 엄마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다. 아파트 현관 앞에는 칠석날 대나무 장식이 역시 되어 있다. 코오베의 문고협회의 모임이 매달 있는데 거기에 등록하고 참석하는 사람은 전문고 운영자의 3분의 2정도 라고 한다. 안내해준 료오(梁)씨는 중국 교포5세로 2년전 서울 여행에 참가한 역시 무스비메노카이의 회원으로 일어, 중국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료오씨와 함께 중국상점가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가까이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 잠시 들렀다. 지금은 문고활동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책이 무척 많았다. 외국책도 많이 소장하고 있다. 멀지 않은 시기에 다시 문고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한다.

코오베 학생청년센터에 숙박 예약을 확인했다.

7월 6일 월요일

오오사카 국제아동문학관(大阪國際兒童文學館)과 오오사카 시립중앙도서관을 견학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어제부터 오오사카 시립중앙도서관의 무라오카(村岡)씨와 연락이 닿지를 않는



〈사진5〉 오오사카 국제아동문학관 전경

다. 오오사카 국제아동문학관의 안내와, 휴관일이지만 오오사카 시립중앙도서관도 견학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오오사카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사코다씨가 준 주소로 국제아동문학관의 견학은 완벽하게 끝났다. 점심을 먹은 후에는 오오사카 시립중앙도서관 대신에 미나토(港)에 가서 오오사카 바다를 구경하고 넓은 기념품 가게에서 오오사카를 맛보았다.

만국박람회가 열렸던 만박공원 안에 있는 국제아동문학관은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지만 거의 천국에 가까웠다. 무례하게 갑자기 찾아가 견학하고 싶다고 말했으나 마침 시간이 괜찮다며 찬찬히 안내해 준 담당직원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해 주고 싶다.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며 타이완식이라고 말한다. 예약없이 불쑥 찾아와 견학하고 싶다고 말하는 타이완 사람이 많구나? 좀 부끄럽기는 했지만 할 수 없었다. 그런데 돌아보는 동안 마음이 통했는지 정말 성실하게 설명해 주고 안내해 주었다. 어린이 열람실, 서고, 개인연구실, 서고내의 희귀본(치리맨 그림책 등) 까지도 캐비닛에서 꺼내 보여주고 사진 찍는 것을 도와주기까지 했다. 예전에 사용되던 멋진 동화그림극 틀을 서고에서 발견한 일은 내게는 또하나의 큰 흥미거리였다.

7월 7일 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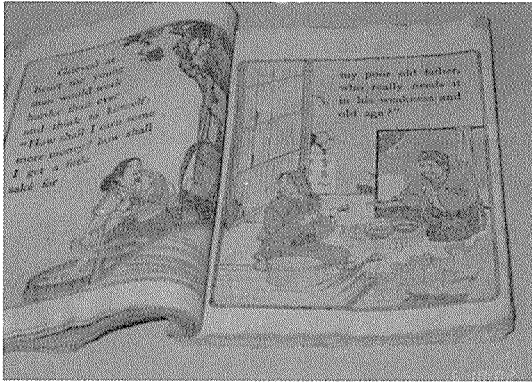
2주 동안 비 한번 뿌리지 않고 뜨겁더니 아침부터 더운 날씨에 비까지 뿌렸다. 짐도 많고 더워서 얼굴에선 땀이 흘러 뚝뚝 떨어지고 게다가 우산을 받쳐 써야하고 너무 힘들었다. 나리타공항. 아하 오늘이 칠석날이구나. 공항천장에도 울



〈사진6〉 열람실

곳불곳 장식이 늘어졌다.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사진을 찍었다. 칠석날 장식에 흥미를 가지고 신기한 광경을 사진에 담는 훌륭한 관광객인 것처럼.

일본 도서관 어린이 봉사현주소(下)는
3·4월호에 연재됨 ■ 편집자주



〈사진7〉 처리맨 그림책

현대관리정보학총서 30

'99 신간

색인·초록

윤구호저

241쪽/신국판
정가 10,000원
회원보급가 8,000원
ISBN 89-7678-039- 6

〈주요목차〉

정보의 조직, 축적, 생산, 전달 / 2차 자료의 의의, 기능, 작성절차 / 색인 및 초록의 발전과정 / 색인의 의의, 기능, 종류 / 색인언어의 구성요소, 장치, 종류 / 초록의 정의, 기능, 특성, 종류, 평가 / 초록작성의 절차, 지침서 / 자동초록, Luhn의 연구, Rush의 연구

구입문의 ·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 전화 02-535-4868 팩스 02-535-5616